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는가/-은가, -나’의 동시적 변화*

俞弼在**

I. 序論	IV. ‘-는가 > -나’ 변화의 설명
II. 語尾 ‘-는가/-은가, -나’의 변화 양상	V. 結論
III. ‘-는가/-은가, -나’의 의미(용법)과 변화 양상	

● 국문초록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중 ‘-는가/-은가’와 ‘-나’가 있다. ‘-는가/-은가’의 교체는 복잡하다. 우선 어간이 동사, ‘있-, 없-’일 경우에는 ‘-는가’가 결합된다. 어간이 형용사, ‘-이-, 아니-’일 경우는 ‘-은가’가 결합된다. ‘-은가’는 일반적인 매개모음을 가진 어미이므로 순수 자음 뒤에서는 ‘-은가’, ‘ㄹ’와 모음 뒤에서는 ‘-는가’로 교체된다. 그러나 선행 語基가 선어말어미 ‘-었-, -겠-’으로 끝날 때는 어간의 품사와 관계없이 ‘-는가’가 결합된다. 의문형 어미 ‘-는가/-은가’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존재했다. ‘없-’ 뒤에 ‘-는가(-는가)’가 아닌 ‘-은가’가 오는 점을 제외하면 현대국어와 교체 양상이 같았다. 18세기에 ‘없-’ 뒤에도 ‘-는가(-는가)’가 결합하면서 현대국어와 교체 양상이 같아졌다. 이후 19세기 중엽에 ‘-는가 > -나’의 변화가 확인된다. 20세기초에는 이미 변화가 많이 진척되어 ‘-나’가 ‘-는가’보다 우세형이 되었다. ‘-나’의 세력은 이후로도 계속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공통어에서 ‘-나’가 형용사 자음 어간 뒤까지 영역을 넓혔다. ‘-는가 > -나’와 평행된 ‘-는고 > -노 > -누’ 및 관련 변화들을 보면 이는 ‘-는-’와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울산대학교 교수

관련된 변화로 추정된다.

주제어 : 의문형 어미 ‘-는가/-은가, -나’, ‘-는가 > -나’ 변화, 교체 조건, 우세형, 형용사 자음어간

I. 序論

현대국어 하계체 의문형 어미에는 ‘-는가/-은가’와 ‘-나’가 있다. ‘-는가/-은가’의 교체는 복잡하다. 어간이 동사, ‘있-, 없-’일 경우에는 ‘-는가’가 결합되지만 어간이 형용사, ‘-이-, 아니-’일 경우는 ‘-은가’가 결합된다. ‘-은가’는 일반적인 매개모음을 가진 어미이므로 순수 자음 뒤에서는 ‘-은가’, ‘ㄹ’와 모음 뒤에서는 ‘-나가’로 교체된다. 그러나 선행 語基가 선어말어미 ‘-었-, -겠-’으로 끝날 때는 어간의 품사와 관계없이 ‘-는가’가 결합된다. 그리고 어미 ‘-나’는 기본적으로는 ‘-는가’와 같은 교체 조건을 가진다.¹⁾

‘-는가’와 ‘-나’가 같은 교체 조건을 가지는 이유는 ‘-나’가 ‘-는가’로부터 변화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는가’가 ‘-나’로 대체되는 변화는 19세기 자료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현대국어 공통어에서 上位文의 경우는 그 변화가 거의 완성되었다. 그 결과 현재 이 어미의 교체는 ‘-는가/-은가’보다는 ‘-나/-은가’가 優勢形이 되었다.

한편 ‘-는가’가 ‘-나’로 변하면서 어미의 형태뿐 아니라 이 語尾가 결합할 수 있는 어간의 조건에도 변화가 생겼다. ‘-는가’와 달리 현재는 형용사 어간 역시 ‘-나’와 결합할 수 있다. 표준어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형용사 ‘좋-’도 ‘좋나 봐’처럼 ‘-나’가 결합되어 쓰인다. 다만 대체로 자음으로 끝난 어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분포가 확대됨으로써 ‘-는가’와 ‘-나’의 분포는 달라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는가 > -나’ 변화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高永根(1974=1989: 366)에서 이미 의문형 어미 ‘-나’가 ‘-는가’의 “줄어든 형식”임을 지적한 바 있다. 유필재(2006: 201)에서는 현대 서울방언에서 이 의문형 어미가 어간의 품사에 따라 ‘-나/-은가’로 교체되는 사실을 보고했다. 구어에서는 ‘-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 2022년 12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은 그렇지 않다. ‘-는가’의 환경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로 기술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주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로 기술하고 있다. ‘있다, 없다, 계시다’가 ‘-나’의 환경에서는 빠진 셈인데 이는 잘못이며 해당 환경도 ‘-나’ 항목에 넣어 주어야 한다. 어미 ‘-나’는 ‘-는가’로부터 변화된 형태이며 출현 환경 역시 애초에는 같았다. 이에 대해서는 ‘2.2 -는가 > -나의 변화’에서 상론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는가 > -나’를 포함하여 어미 ‘-는가/-은가’가 겪은 형태 변화 과정을 밝혀 이 어미들의 현재 상태를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관련된 어미들의 변화를 통해 이 변화의 조건을 추정해 보려 한다.²⁾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어미 ‘-는가/-은가, -나’의 변화 양상을 검토한다. ‘-는가/-은가’는 이미 15세기부터 존재하던 어미였기 때문에 15세기부터 현대국어까지 이 어미가 겪은 교체 조건의 변화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는가/-은가, -나’의 환경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4장에서는 ‘-는가’와 관련된 어미들의 변화까지 함께 검토하여 ‘-는가 > -나’ 변화의 조건을 추정해 본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Ⅱ. 語尾 ‘-는가/-은가, -나’의 변화 양상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는가, -은가, -나’의 교체는 어간의 품사, 어간 말음의 종류 등에 따라 복잡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 우선 어간이 동사, ‘있-, 없-’일 경우에는 ‘-는가’가 결합되고 형용사, ‘-이-, 아니-’일 경우에는 ‘-은가’가 결합된다. ‘-은가’의 ‘으’는 일반적인 매개모음이기 때문에 ‘ㄹ’와 모음 뒤에서는 탈락된다.

- (1) 먹는가, 사는가, 가는가
 있는가, 없는가
 작은가, 먼가, 큰가
 책인가, 찬가~차인가

그런데 어간에 관계없이 선어말어미 ‘-었-, -겠-’ 뒤에서는 ‘-는가’가 나타난다.

2)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실체형)에는 ‘-습니까/-ㅁ니까’(하십시오체), ‘-쇼/-오, -으오, -으우’(하오체), ‘-는가/-은가~나’(하게체), ‘-느냐/-으냐~냐, -니~으니’(해라체), ‘-아요/-어요’(해요체), ‘-아/-어’(해체)가 있다. 이 중 변화 과정에 있는 것은 하게체, 해라체 어미인데 해라체 어미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유필재(2018)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 (2) 먹었는가, 살았는가, 갔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작았는가, 멀었는가, 컸는가
책이었는가, 차였는가

‘-는가’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나’가 나타난다.³⁾ ‘-는가’보다는 ‘-나’가 優勢形이다.

- (3) 먹나, 사나, 가나
있나, 없나
작은가, 먼가, 큰가
책인가, 찬가~차인가

- (4) 먹었나, 살았나, 갔나
있었나, 없었나
작았나, 멀었나, 컸나
책이었나, 차였나

이상의 교체 양상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표준어의 양상을 기술한 것이다. 이 중 ‘-는가/-은가’는 이미 15세기 국어에서부터 확인된다. 이 때문에 이 어미들의 변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중세국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 어간 조건의 변화 (1) - ‘없-’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는가, -은가’는 중세국어의 ‘-는가, -은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는 어미 ‘-은가’ 하나인데 동사, ‘잇-’ 뒤에서는 선어말어미 ‘-느-’가 결합되어 ‘-는가’로, 형용사와 ‘-이-, 아니-’ 뒤에서는 어미가 직접 결합되어 ‘-은가’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는가’는 ‘-느-’와 ‘-은가’로 분석된다.

3) 현대국어 공통어에서는 ‘작나 보다’처럼 형용사 자음어간 뒤에서도 ‘-나’가 나타난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일어난 변화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5) 道場에 안즈샤 得^ㅎ산 妙法을 닐오려 호시논가 HHLH 授記를 호려 호시논
가 HHLH <석보상절 13:25b>⁴⁾
- (6) 몬져 브레 벌에 잇논가 LLH 보되 <월인석보 25:57a>
- (7) 父母ㅣ 드르시고 거죽말을 올훈가 HLH 호시니 <월인석보 22:10b>
ㅁ스ㅁ 緣^ㅎ논 그르메와 다론가 LLH 疑心^ㅎ야 <능엄경언해 2:58a>
- (8) 사름 ㅁ토되 썩리 이실씩 사르민가 RHLH 사름 아닌가 LHH 호야 疑心^ㅎ
되니 <월인석보 1:15a>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없-’ 뒤에 ‘-은가’가 결합된다.

- (9) 名敎를 受待호몬 利益 업슨가 RLH 저플식 묻조오시니라 <원각경언해 하
3-2:68b>

‘없-’가 현대국어처럼 ‘-는가’와 결합하게 된 것은 18세기에 와서의 일이다.

- (10) 네 보라 여귀 스나희 잇논가 업논가 <五倫全備諺解 7:11a>(1721)

현대국어에서는 동사, ‘있-, 없-’ 뒤에서는 ‘-는가’가, 형용사, ‘-이-, 아니-’ 뒤에서
는 ‘-은가’가 결합된다. ‘없-’ 뒤에 ‘-는가’가 결합되는 18세기가 되면 교체와 관련된
어간의 조건은 현대국어 ‘-는가/-은가’와 같아졌다고 할 수 있다.

2. ‘-는가 > -나’의 변화

그런데 19세기 중엽부터 ‘-는가’가 ‘-나’로 변화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⁵⁾

4) 중세국어의 평성, 거성, 상성은 각각 L, H, R 로 표기한다.

5) 의미 변화도 확인된다. 15세기에 ‘-은가’는 ‘-을가, -은고, -을고’와 함께 間接話法에서 내심에 있는
의문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安秉禧, 李珣鎬 1989: 243). 특히 ‘-은가, -을가’는 간접화법에 있어서

- (11) a. 텃디인간 니별 중의 날 곶 흐니 또 잇 노가 <남원고사 2:37b>(1864)
 b. 빅옥 갓튼지 알 슈가 잇나 <남원고사 4:31a>

의문형 어미 ‘-나’의 형태가 나타난 19세기 자료로는 《남원고사》(1864)가 가장 이른데 《남원고사》로만 한정해서 말한다면 ‘-나’는 주로 어간 ‘잇-’과 어미 ‘-엇-’ 뒤에서 나타난다. ‘-엇-’은 잘 알려진 것처럼 ‘-어 잇-’에서 온 것이므로 ‘-나’의 출현 환경이 ‘잇-’과 ‘-엇-’인 이유가 설명된다.

- (12) a. 심심^흐여 날 츄 즈라 왔나 무슨 바람이 부러 왔노 <남원고사 3:16b>
 b. 그 말을 너의 어머니다려 아니 흐 엿나 보고나 <남원고사 1:40b>

‘-는가 > -나’의 변화는 (12a)처럼 상위문에서도 보이고 (12b)처럼 ‘-나 보-’같은 내포문에서도 확인된다.

19세기말 자료에서는 ‘잇-’가 아닌 어간 뒤에서도 ‘-나’의 예가 보이고 ‘-곶-’ 뒤에서 ‘-나’가 나타나는 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잇-, -엇-’ 뒤의 예가 가장 많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초에도 이어진다. ‘잇-’ 외의 어간인 ‘알-, 구완하-’와 ‘-곶-’ 뒤에 나타난 ‘-나’의 예를 들어 보인다.

- (13) a. 그곳 빅성들의 말이 (예) 그제 누군 줄 아나 지평 원임일세 <매일신문 1898. 6. 14. 잡보>
 b. 이리아가 와 구완하나 보자 하니 <예수성교전서 마27:49>(1887)

- (14) (히) 완민인들 그런 완민들이 어디가 잇 곶나 …… 너가 짓쳐 못 견디고 말았네 <매일신문 1898. 6. 13. 잡보>

화자의 마음 속의 불안, 두려움, 걱정, 억측 등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이 어미들에 후행하는 동사는 ‘너지, 징- 시름^흐-, 스랑^흐-, 시프~식브-, ^흐’가 많다(志部昭平 1972: 31). 그런데 (11)은 15세기의 自問에 쓰이는 ‘-는가’가 아니라 상대경어법 어미 중 하나로(하계체) 쓰인 예이다. 이상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면 현대국어 ‘-는가/-은가, -나’의 용법 중 自問, 그리고 ‘-는가 보-, -는가 싶-, -는가 하-’같은 보조 용언 구성이 중세국어부터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된 용법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나머지는 그 후에 생긴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현대국어의 의문형 어미 ‘-나’는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출발은 어간 ‘잇-’과 어미 ‘-잇-’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나’는 꾸준히 ‘-는가’를 대체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변화의 경향으로 보아 20세기 초가 되면 ‘-는가 > -나’의 변화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세기 초 자료에서 ‘-는가’와 ‘-나’는 용례가 너무 많아 자료를 통해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양적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는가, -나’ 대신에 ‘-는가, -나’가 포함된 특정 형태로 범위를 한정하여 ‘-는가’에서 ‘-나’로의 변화의 양상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요’와 ‘-겠-’이 결합된 활용형으로 자료를 제한하여 변화 양상을 보인다.

이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20세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신학월보(1901-1904, 1907-1909), 대한매일신보(1904), 기해일기(1905), 경향보감(1906), 경향신문(1906), 혈의누(1906), 귀의성(1906), 고목화(1907), 애국부인전(1907), 구마검(1908), 금수회의록(1908), 빈상설(1908), 설중매(1908), 송뢰금(1908), 은세계(1908), 철세계(1908), 치약산(1908), 경세종(1910), 자유종(1910), 재봉춘(1910), 홍도화(1910), 목단화(1911), 원양도(1911), 월하가인(1911), 화세계(1911), 화의혈(1911), 구의산(1912), 두견성(1912), 명월정(1912), 비행선(1912), 추월색(1912), 행락도(1912), 모란병(1913), 금강문(1914), 금국화(1914), 눈물(1914), 안의성(1914), 연경좌담(1923)

20세기 초가 되면 ‘-는가, -나, -은가’ 뒤에 ‘-요’가 결합된 해요체 어미 형태도 나타난다.⁶⁾ 이는 해요체 어말어미의 출현과 관련된 사실로 생각된다.

해요체 어미 ‘-는가요, -나요, -은가요’의 가장 이른 예는 ‘경향보감(1906)’에 나타난다.

(15) a. 베드루] 글세오마는 성교 공부하기 석문에 무식하면 되나요 <경향보감 2:243>(1906)

b. 그 두 가지 문서 중에 어느 문서가 올흔가요 <경향보감 4:196>

6) ‘-요’가 결합되는 하계체 종결어미는 ‘-는가~-나/-은가, -던가, -네’뿐이다. 일반적으로 ‘-요’가 결합되는 종결어미는 해체 어미이다.

- c. 다 오 주 예수 께 ㄴᆞ치신 것이 아닌가요 <경향보감 2:331>

그 이후에 간행된 문헌에서도 ‘-는가요, -나요, -은가요’는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 (16) a. 참 일본ᄃ고 아라스ᄃ고 싸ᄃ음이 되ᄃ는가요 <두견성 하:1>
b. 그런디 예서 읍ᄃ가 얼마나 되ᄃ나요 <구의산 下: 35>
c. 리직각 톱 묘ᄃ가 울산 엇의쑤 잇ᄃ나요 <흥도화 하:81>
d. 앓갑구려 서판서 대감씨서 다른 즈ᄃ레는 쫓 업ᄃ나요 <구의산 上:83>
e. 그것 무슨 병ᄃ인ᄃ가요 믹우 톱단히요 <두견성 상:96>

이상의 20세기 초 자료에서 ‘-나요’는 모두 331개의 용례가 확인된다. 주로 ‘잇-’와 ‘-엇-’ 뒤에서 나타나고 ‘ᄃ-’ 뒤에 나타난 예가 몇몇 있다. 출전도 한정되어 있다. 신소설에서 주로 나타나고 신소설이 아닌 것으로는 ‘경향보감’의 대화 부분에서 예가 있다.

한편 ‘-는가요(-는가요)’는 이상의 20세기 초 자료에서 모두 10개의 용례가 있을 뿐이다. 신소설 《두견성》(1912), 《금국화》(1914)에서만 확인된다. 확인된 자료를 모두 (17)에서 제시한다. 띄어쓰기는 필자가 했다.

- (17) a. 믹일 학교에 단ᄃ이ᄃ는ᄃ가요- <두견성 상:42>
b. 참 일본ᄃ고 아라스ᄃ고 싸ᄃ음이 되ᄃ는가요 <두견성 하:1>
c. 요사이에ᄃ도 항상 싸ᄃ증을 느ᄃ시ᄃ는ᄃ가요 <두견성 상:90>
d. 그런디 강화ᄃ도는 한양ᄃ려 가ᄃ시ᄃ는ᄃ가요 <두견성 상:95>
e. 봉남ᄃ이가 벌서 왔ᄃ는ᄃ가요 <두견성 하:16>
f. 사ᄃ름이 고만 죽어 버ᄃ리ᄃ는ᄃ가오 <금국화 61>
g. 그런데 원주ᄃ서는 아직도 소식ᄃ이 업ᄃ는ᄃ가오 <금국화 18>
h. 그런디 희ᄃ묵ᄃ이란 사ᄃ름은 아직도 소식ᄃ이 업ᄃ는ᄃ가오 <금국화 43>
i. 그리 아버지ᄃ씨ᄃ는 아ᄃ쫘 어머니ᄃ를 고만 벌ᄃ인 사ᄃ름으로 인정을 ᄃᄃ시ᄃ는ᄃ가오 <금국화 109>

j. 어머니께서는 도라가지지나 아니 흐얏 는가오 <금국화 65>

이상의 검토로 20세기 초에 이미 ‘-나요’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는가요’는 거의 소멸 직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이다.⁷⁾

또한 ‘-나요’가 신소설과 ‘경향보감’의 대화 부분에 나타나는 사실에서 20세기 초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나요’는 구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가 없는 ‘-나’에 대해서도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선어말어미 ‘-겠-’이 결합된 ‘-겠나’와 ‘-겠는가’로 한정하여 변화의 양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20세기 초 자료에서 ‘-겠나’와 ‘-겠는가’는 흥미로운 분포를 보인다. ‘-겠나’는 신소설의 대화 부분에서, ‘-겠는가’는 신문 등에서는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이 확인된다. ‘-나요’와 ‘-는가요’에서 보았던 구어, 문어 차이와 관련된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 몇몇을 (18, 19)에 보인다.

- (18) a. 즈네가 그리만 흐얏스면 작키나 도켓나 <우중행인 95>
b. 고싱살이를 그딴지 흔 줄이야 누가 알앗겠나 <현미경 255>

- (19) a. 농스나 장스나 각씩 싱업이 잘 되겠는가 <경향신문 1907.5.10.>
b. 원망~~흔~~ ~~딴~~ 몹이 업섯겠는가 <대한매일 1908.10.9.>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는가’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한 어미 ‘-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는 ‘-잇-, -엇-’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세기의 일로 추정된다. 둘째, ‘-나요’는 20세기 초에는 이미 ‘-는가요’와 비교해서 우세형이 되었다. ‘-나’와 ‘-는가’의 사정도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나(요)’는 소설 속 대화문같은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형태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는가, -는가요’는 계속 ‘-나, -나요’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인 1930년대 자료인 《천변풍경》, 《삼대》를 예로 들어 보면 이 자료들에서는 동사 어간 뒤와 ‘-잇-’ 뒤에서 ‘-는가요’의 용례가 없다. 모두 ‘-나요’로만 나타난다.

7) 현대국어 자료에서도 ‘-는가요’가 쓰이는 경우는 ‘調書’라는 특정 문서에서가 대부분이다. 서남방언에서는 ‘-는가요’가 쓰인다.

현재는 상위문에서의 ‘-는가’는 거의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는가(요)’는 대체로 ‘-나(요)’로 대체되었다.

3. 어간 조건의 변화 (2) - 형용사 자음어간

한편 현대국어 공통어에서는 ‘-나’가 결합하는 어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나’는 ‘-는가’의 변화형이므로 ‘-는가’와 분포 조건이 같았다. 다시 말해서 동사, ‘있-, 없-’, 선어말어미 ‘-었-, -겠-’ 뒤에서만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국어 자료에는 형용사 자음 어간 뒤에서도 ‘-나(요)’가 확인된다.

(20) 보약이 좋긴 좋나 봐 <박해영 외, 올드미스 다이어리 178회, 2005>

특히 ㅂ불규칙용언에서 ‘-나’와 관련된 재미있는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1)에서 ㅂ불규칙용언인 ‘무섭-’는 형용사이므로 ‘-은가’가 결합된 ‘무서운가’가 문법에 맞다. 이와 더불어 ‘-나’가 결합된 형태도 있는데 이때는 자음 앞이므로 異形態 ‘무섭-’으로 나타나 ‘무섭나’가 된다.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이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 (21) a. 세무사찰을 받아 본 사람은 국세청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큰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잘 안다. <한겨레신문 1993. 3. 25>
b. 대학생 아저씨는 쥐가 안 무섭나 봐. <최성실, MBC 육남매 9회, 1998>

그 외에 형용사에 결합된 ‘-나’의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요’의 예는 (22)와 같다.

- (22) a. 그 돈이 적나요? <문화정,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2회, 2008>
b.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랑 똑같나요? <박현주, 황금신부 16회, 2007>
c. 이혼이 그렇게 어디 쉽나요?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59회, 2011>
d. 그거 잡아도 괜찮나요? <최희라, 산부인과 6회, 2010>
e. 근데 이렇게 많나요? <정재호 외, 조용한 세상, 2006>

- f. 정말 알고 싶나요? 〈이수연, 4인용 식탁, 2003〉
- g. 이름이 어렵나요? 콘드로이친 〈텔레비전 광고, 2023〉

‘-나 보-, -나 싶-, -나 하-’에서 내포문으로 사용된 예는 (23-25)와 같다.

- (23) a. 키가 작나 보구나 〈노희경,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11부, 1999〉
b. 근데 많이 출나 보다 〈문은아, 웃어라 동해야 64회, 2011〉
c. 너무 맛있어서 아깝나 보다 〈노희경, 굿바이 솔로 9회, 2006〉
- (24) a. (뭐 어렵나 싶은) 그래 〈이영철 외, 지붕 뚫고 하이킥 53회, 2009〉
b. 다음부터 은행 강도의 생리에 맞게 좀 임무를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장 진 외, 바르게 살자, 2007〉
- (25) a. 누가 저렇게 촌스럽나 하고 본 것 같아요.[원문대로]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2회, 2009〉
b.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네 〈이정범, 열혈남아, 2006〉
c. 저저, 이주 식구대로 싸가지가 없네. 큰 딸은 좀 낫나 했더니만 〈문희정, 그대 웃어요 5회, 2009〉

그 외의 환경에서 형용사 자음 어간 뒤에 나타난 ‘-나’의 예는 (26-29)과 같다.

- (26) 출나 안 출나, 그냥 봤어요. 〈최윤정, 아이싱 1회, 1996〉
- (27) 와, 내가 와인 좀 마시는게 그렇게 아깝나? 딱 한 잔만 더 할 게요 〈이선미, 장현주, 커피프린스 1호점 16회, 2007〉
- (28) ‘시신 없는 살인사건’ 유죄 입증 어렵나? 〈JTBC 뉴스룸, 팩트체크, 2019. 6. 19〉
- (29) 과장이면 나이 많지 않나? 〈문희정,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1회, 2008〉

이상의 형용사 어간 뒤에 결합된 ‘-나’ 예들에는 ‘자음’이라는 음운 조건이 작용하

고 있다.

어미 ‘-나’가 형용사 어간 뒤에도 결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전부터도 어간이 형용사일 때 ‘-었-, -겠-’이 결합된 語基에는 ‘-나(요)’가 결합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

(30) 제가 좀 늦었나요? <박연선, 얼렁뚱땅 홍신소 13회, 2007>

또한 어미 ‘-는가’가 ‘-나’로 형태가 변하면서 동사 어간 뒤에 결합하는 이른바 ‘느’계 어미들에서 이탈하게 된 사실도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동사 어간 뒤에서 ‘-는가(<-는가)’가 결합된 이유는 어미에 있지 않다. 어미는 단일한 ‘-은가’이다. ‘-은가’가 중세국어 당시 동사 뒤에서는 ‘-느-’가 결합된 語基에 결합된 데에서 동사 뒤에서는 ‘-는가’, 형용사, ‘-이-, 아니-’ 뒤에서는 ‘-은가’의 교체가 성립된 것이다. ‘-는가’가 ‘-나’로 바뀜으로써 ‘-는가’와 동사 어간과의 관련성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미 ‘-나’는 동사 어간 뒤에 결합하는 ‘-는데, -는지, -는걸’ 등과의 형태적 有緣性이 없으므로 ‘동사 어간 뒤’라는 제약도 없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Ⅲ. ‘-는가/-은가, -나’의 의미(용법)과 변화 양상

2장에서 ‘-는가/-은가, -나’의 변화를 이 어미들의 分布와 形態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이들 어미들은 환경에 따라 의미(용법)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 장에서는 ‘-는가/-은가, -나’의 의미(용법)을 이 어미들이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제시하고 각 경우의 대략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2장에서 제시한 변화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국어 공통어로 한정하면 이 어미들의 의미(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첫째, 하계체 의문형으로 쓰인다.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 어디 가나?’라고 말할 때 쓰인 것이 그 예이다.

8) 형용사 어간 뒤에는 결합하지 않던 의문형 어미 ‘-니?’가 형용사 어간 뒤에 결합하게 된 데에도 선어말어미 ‘-겠-’의 역할이 컸다. 유필재(2018: 90) 참조.

둘째, ‘-요’가 결합되어 해요체 의문형으로 쓰인다. 이때는 ‘-은가요, -나요’가 주로 쓰인다. ‘지금 어디 가나요?’를 ‘지금 어디 가는가요?’로 바꾸어 쓰면 매우 어색하다. 실제로도 현대국어 구어에서는 ‘-는가요’의 용례는 거의 없다. 다만 調書같은 文語 자료에서 나타날 뿐이다.

셋째, 自問에 쓰인다. ‘재, 어디 가나?’라고 혼잣말을 할 때 쓰인 것이 그 예이다. 이 自問은 음성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글이나 책 제목으로 쓰인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처럼 책, 신문기사의 제목 등에서 쓰인다. 앞의 세 부류는 ‘-는가(요)’로 쓰이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의 세 부류와는 달리 여전히 ‘-는가’도 제법 많이 사용된다.⁹⁾

- (31) a. 미래의 자연사 - 생물법칙은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책 제목)
b. 반복의 심리학: 왜 나는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가 (책 제목)

- (32) a. 北에 즉각적 · 궤멸적 대응 왜 못하는가 (신문 사설 제목)
b.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마스크 5부제, 첫 주말 약국 앞 시민들 한숨만 가득 (신문 기사 제목)

다음으로 내포문의 경우를 검토한다. 내포문에서는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와 보조 용언 구성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첫째, ‘-는가/-은가, -나’는 명사절로 쓰인다.¹⁰⁾

- (33) a.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 것인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b.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누가 더 젊은가에 달려 있다.
c. 그가 누구인가 잊어 버렸어.

그리고 ‘-는가/-은가, -나’ 뒤에 상위문의 서술어가 직접 결합되는 경우에는 ‘모르

9) 이 네 가지 용법 중 앞의 둘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없던 것이다. 넷째 용법 역시 중세국어에는 없지만 셋째 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에 없던 용법은 대체로 하계체가 성립된 18세기경부터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10) 이때의 ‘-는가/-은가, -나’는 ‘-는지/-은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다, 의심스럽다’ 등 ‘疑心’을 의미하는 용언이 많이 쓰인다.¹¹⁾

(34) 왜 다들 과거에는 관심이 없나 모르겠어요.

둘째, ‘-은가/-는가~나 보-, -은가/-는가~나 싶-, -은가/-는가~나 하-’같은 보조용언 구성으로 쓰인다.¹²⁾

- (35) a. 포기했다더니 아닌가 보네? <이새인, 김희주, 개인의 취향 12회, 2010>
 b.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어요 <현고운, 1%의 어떤 것 22회, 2016>
 c. 난 그냥 너 괜찮은가 해서 본 거야 <이영철, 이소정, 조성희, 지붕 뚫고 하이킥 32회, 2009>

이상과 같은 내포문에서는 ‘-는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명사절 그리고 ‘-는가 보-, -는가 싶-, -는가 하-’에서는 ‘-는가’가 나타난다.¹³⁾

- (36) 이거는 영국에서 유행하는건데, 이 고리를 어떻게 빼는가를 푸는 거고
 <박연선, 얼렁뚱땅 홍신소 15회, 2007>

11) ‘모르다, 의심스럽다’ 등이 상위문의 서술어일 때에는 ‘-는가/-은가, -나’는 의문형 어미 ‘-냐’로 바꿀 수 없다.

× 왜 다들 과거에는 관심이 없나 모르겠어요.

이러한 현상은 ‘의문문’을 ‘疑問’과 ‘自問’으로 나눔으로써 설명해 볼 수 있다. ‘疑問’으로 쓰인 문장은 인용절로 바뀔 때에는 상대경어법이 中和되어 어미가 해라체 의문형 ‘-냐’로 바뀐다. 한편 ‘自問’으로 쓰인 문장의 어미 ‘-는가/-은가, -나’는 인용절로 바뀔 때에도 어미가 ‘-냐’로 유지된다. ‘自問’으로 쓰일 때 후행하는 상위문 서술어는 ‘모르다, 의심스럽다’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疑心’의 의미가 포함된 自問이야말로 의문형 어미로서 ‘-는가/-은가, -나’와 ‘-을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12) ‘-은가/-는가~나’ 자리에 같은 계열을 이루는 ‘-던가, -을까’도 올 수 있다.
 13) 이러한 용법들은 중세국어부터 있던 용법이 약간 변형된 것이다.

- (37) a. 겁은 되게 나는가 보구나 <정하연, 욕망의 불꽃 11회, 2010>
b. 그래서 윤이 따르는가 싶었거든 …… <최희라, 산부인과 13회, 2010>
c. 선생님 언제 오시는가 해서요. <조정선, 솔약국집 아들들 19회, 2009>

한편 특이한 예로 ‘-는가’가 ‘-나’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는가’는 ‘-는가/-은가 하면’으로 쓰여 ‘대립’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나 하면’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38) a. 1 초도 안 될 만큼 짧은 것이 있는가 하면 몇십 분짜리 긴 쇼트도 있다. <정재윤, 영화즐기기, 한샘출판사, 1994>
b.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은가 하면 ‘큰 걱정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대교 외, 동아일보 좌담기사, 1991.2.10>

이 때의 ‘-는가/-은가 하면’은 ‘-는가’가 구성요소로 사용된 구인데,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며 굳어진 표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내포문 전체, 그리고 상위문 중 일부의 경우, 다시 말해서 調書같은 문어 자료, 그리고 책, 신문기사 등의 제목 등에서는 ‘-나’로의 변화가 지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화는 거의 완성되었고 형용사 어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IV. ‘-는가 > -나’ 변화의 설명

어미 ‘-는가/-은가’는 기원적으로는 관형형(명사형)에 ‘-가, -고’가 결합된 것이다. 판정의문문에는 ‘-가’, 설명의문문에는 ‘-고’가 결합되었다. ‘-는가 > -나’의 변화는 이처럼 관련된 어미를 전체를 고려하면서 설명되어야 한다.

중세국어 ‘다을 LL 업스니 (無極^ㅎ니) (법화경언해 2:75b), 虞芮質成^ㅎ노로 -LHH (용비어천가 2:1b)’에서 ‘다을 LL, ^ㅎ노로 LHH’는 동사 ‘다으- LL, ^ㅎ- H/L’의 관형형 ‘다을 LL, ^ㅎ L’에 각각 조사 ‘-스, -으로 HH’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가 결합되었으므로 명사형으로 사용된 것이다.¹⁴⁾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는 이러

한 용법이 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李基文 1961:144).

또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에 직접 ‘-가, -고’를 결합시킨 의문문도 있었다.

(39) a. 이 썩리 너희 종가 <월인석보 8:94b>

b. 이 었던 光明고 <월인석보 10:7b>

(39)의 ‘종가, 光明고’는 명사 ‘종, 光明’에 ‘-가, -고’를 결합시켜 의문문이 되었다. 역시 판정의문문에는 ‘-가’, 설명의문문에는 ‘-고’가 쓰인다.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는 ‘-가, -고’가 명사뿐 아니라 명사형으로 사용되는 관형형 형태에도 결합되어 의문문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어미 ‘-을’에 ‘-가, -고’가 결합된 형태가 ‘-을가, -을고’이고 어미 ‘-은’에 ‘-가, -고’가 결합된 형태가 ‘-은가, -은고’이다. 어미 ‘-은’은 선어말어미 ‘-느-, -터-’를 선행시킬 수 있었는데 이 ‘-느-, -터-’에 어미 ‘-가, -고’가 결합된 형태가 ‘-는가, -는고, -터가, -터고’이다.

중세국어 시기에 사용된 이들 의문형 어미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관형형(명사형) ‘-을, -은’에서 기원한 중세국어 의문형 어미

	-을	-은		
-가	-을가	-은가	-는가	-터가
-고	-을고	-은고	-는고	-터고

어미 ‘-을가, -을고, -은가, -은고, -는가, -는고, -터가, -터고’ 중 ‘-는가, -는고’는 후대에 형태 변화를 겪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는가’는 ‘-나’로 변화하는 중이다. ‘-는고’도 ‘-누’로 바뀌었다. 이는 ‘-는고 > -노 > -누’의 과정을 거친 것일 수도 있고 ‘-는고 > -는구 > -누’의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非語頭에서 일어난 ‘ㄴ > ㄷ’ 변화에 의한 것이다.¹⁵⁾ ‘-는가(-는가) > -나’ 변화의 예는 앞에서 들었으므로

14) 李基文(1998:175)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여 어미 ‘-은, -을’을 ‘-음/-음, -기’와 함께 묶어 ‘동명사 어미’로 명명하였다.

15) 어미 ‘-우, -구나’ 역시 ‘-오, -고나’가 非語頭에서 ‘ㄴ > ㄷ’ 변화를 겪은 것이다. ‘-우, -구나’는 표준어로도 인정되어 있다.

‘-논고’에서 변화한 ‘-논구, -노, -누’의 예만 들어 보인다.

- (40) a. 그 산 일흠을 엇지^하야 팔영이라고 흐얏^하논고 하니 <구의산 下:62>
 b. 그 덕예를 너가 엇지되야 가 잇션^하논구 하니 <황금탑 384>
 c. 십사리 온다더니 일년이 지^하도록 엇지 아니 오노 호고 <추월색 82>
 d. 별안간 웨 저렇게 인심이 좋아졌^하노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삼대 하:98>

‘-논가(-논가) > -나’와 마찬가지로 ‘-논고 > -누’의 변화는 20세기 초까지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대>에는 (40d)처럼 ‘-누’ 형태도 있지만 (41)처럼 ‘-논고’ 형태가 함께 나타난다.¹⁶⁾

- (41) 집안이 어찌 되려고 이러^하논고 싶었다 <삼대 상:44>

‘-논가 > -나, -논고 > -노 > (-누)’ 변화는 ‘-논 ㄱ-’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은가, -은고, -던가, -던고’ 등 단순한 ‘-ㄴ ㄱ-’ 환경을 가진 다른 어미들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논 ㄱ-’ 환경을 가진 어미는 ‘-논가, -논고’ 외에 ‘-논고나’가 더 있다. ‘-논고나’ 역시 ‘-논고 > -노 > -누’와 같은 변화 과정을 겪는다.¹⁷⁾ ‘(-노나) > -누나’로 남아 있다.

- (42) a. 법을 킷오 잘 아^하논고나 <빈상설 497>(1908)

16) 공통어에서는 ‘-을고() -을구), -은고/-논고~누, -던고’는 거의 다 없어졌다. ‘-논고/-은고 하니, -논고/-은고 하면’으로 쓰이는 ‘-논고/-은고 하-’에만 남아 있다. ‘어던고 하니, 누군고 하니, 왜 그런고 하니’에서 보듯이 모두 의문사와 함께 쓰인다.

‘누가 우리 반 반장인고 하니 다른 사람 아닌 철수가’처럼 ‘철수’가 관심의 초점이라는 것이다. (이익섭, 채완 1999: 206)

志部昭平(1972: 49~50)에 의하면 ‘-을고, -은고’를 비롯하여 설명의문문을 표시하는 어미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의 일이다.

17) 2022년 12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누나’의 참조항목으로 ‘-논구먼, -논군’을 제시하고 있다. ‘누나’의 참조항목은 ‘-논구나’가 더 적절할 것이다.

b. 그러면 남딴문 밧 정거장까지 가는구나 시골돈 열닷냥만 닌여라 <고목화 781>(1907)

c. 물노 쑥-드리갸다 한번 썰쑤 소섯다 쏘 드러가노나 저것 엇저나 <금의쟁성 206>(1913)

(43) 애 우리 엄마두 거즈뿌리 썩 잘 하누나. 내가 답알 좋아하는 줄 잘 알면서 두 생 먹을 사람이 업대누나 <사랑손님과 어머니, 朝光 1935년 11월호(창간호) 63>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는가 > -나’ 변화는 어미 ‘-느-’의 기능 변화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가 한다. ‘-느-’는 이전 시기에는 {現在}라는 의미를 가진 선어말어미였지만 시제 체계가 바뀌면서 활용형에서 ‘-느-’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었다. ‘-느-’의 분명한 의미가 사라지면서 형태 역시 변화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느니’에서 기원한 의문형 어미 ‘-니’ 역시 ‘-느니 > -느이 > -니’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⁸⁾ 이 변화 역시 특별한 기능이 없는 ‘-느-’의 형태가 바뀐 예이다. 형태가 변화된 의문형 어미 ‘-니’ 역시 형용사 어간 뒤에도 결합하는 방향으로 분포가 확대되었는데 이 역시 ‘-나’의 경우와 같다.

V. 結論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중 ‘-는가/-은가’와 ‘-나’가 있다. ‘-는가/-은가’의 교체는 복잡하다. 우선 어간이 동사, ‘있-, 없-’일 경우에는 ‘-는가’가 결합된다. 어간이 형용사, ‘-이-, 아니-’일 경우는 ‘-은가’가 결합된다. ‘-은가’는 일반적인 매개모음을 가진 어미이므로 순수 자음 뒤에서는 ‘-은가’, ‘ㄹ’과 모음 뒤에서는 ‘-는가’로 교체된다. 그러나 선행 語基가 선어말어미 ‘-었-, -겠-’으로 끝날 때는 어간의 품사와 관계없이 ‘-는가’가 결합된다. 의문형

18) 李賢熙(1982b: 146f) 참조.

어미 ‘-는가/-은가’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존재했는데 19세기 중엽에 ‘-는가 > -나’의 변화가 확인된다. 20세기초에는 이미 변화가 많이 진척되어 ‘-나’가 ‘-는가’보다 우세 형이 되었다. ‘-나’의 세력은 이후로도 계속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통어에서 ‘-나’는 형용사 자음 어간 뒤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변화는 내포문 그리고 상위문에서의 일부 용법을 제외하면 모든 ‘-는가/-은가, -나’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는가 > -나’ 변화와 평행된 ‘-는고 > -노 > -누’ 변화를 보면 이 변화는 ‘-느-’와 관련된 변화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高永根, 『國語形態論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安秉禧, 李珣鎬,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1990
유필재,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2006
이경우, 『최근세국어 경어법 연구』, 태학사, 1998
이기갑,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2003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61
——, 『國語史概說(新訂版)』, 태학사, 1998
이승희,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太學社, 2007
이익섭 · 이상억 · 채 완,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
이익섭 · 채 완,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 1999
- 高永根,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4
[高永根(1989)에 「尊卑法」으로 재수록.]
유필재, 「현대국어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 -니’의 변화」, 『어학연구』 54(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8
李丞宰, 「京畿地域의 聽者敬語法 語尾에 대하여: 疑問法을 중심으로」, 『方言』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李賢熙,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a
——, 「國語 終結語尾 發達에 대한 管見」, 『國語學』 11, 국어학회, 1982b
志部昭平, 「中期朝鮮語의 疑問法에 就いて(중세한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朝鮮學報』 62, 朝鮮學會, 1972

On the Interrogative Ending ‘-nunga/-unga’ and ‘-na’ in Contemporary Korean

Yoo, Pil-jae

The interrogative forms of Contemporary Korean are divided into six levels by the style. In the familiar style(하계체), there is the interrogative ending *-nunga*, with a verb stem and prefinal ending *-ess-* or *-keyss-*. With an adjective, *-(u)nga* is used. If the adjective ends in a vowel, *-nga* is attached but if it ends in a consonant, *-unga* is attached. By removing *nu* and deleting *g*, the ending *-nunga* is changed to *-na*. This change is an ongoing process and is not completed in the embedded sentence. In contrast, its loss in the final sentence almost completed the process. Furthermore the suffix *-na* beca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stem which ends in a consonant. These morphological changes are related to loss of *-na*(-ㄴ-) and change of tense system in Korean.

Key Words : interrogative form, ending *-nunga/-unga*, change of *-nunga* > *-na*, loss of *-na*(-ㄴ-), Contemporary Korean